

리빙 & 아트 **소이캔들**

친환경 향초...아로마 테라피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공예가 전진영씨가 소이왁스를 녹인 후 로즈메리 향의 에센셜 오일을 섞어주고 있다.

천연 향이 들어간 소이캔들의 인기가 대단하다. 방향제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집안 인테리어에도 이만한 소품이 없다. 재료만 준비하면 만들기도 쉬우며 용기는 얼마든지 재활용도 가능하다.

‘환하게 비취준다’는 의미의 캔들(Candle)은 용기의 모양과 심지의 종류, 왁스의 재료에 따라 양키캔들, 우드캔들, 소이캔들, 아로마캔들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캔들이 공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공 처리한 소이 왁스를 넣어 만든 소이(Soy) 캔들이다.

소이캔들은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캔들 재료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소이캔들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광주 봉선동에 있는 ‘디자인노리’ 공방. 전진영(40) 대표가 소이 캔들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느질만 해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소이캔들을 만들어보게 됐어요. 굳히는 시간 때문에 오래 걸릴 뿐이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속 공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이캔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간단하

콩 추출 오일 소이 왁스 사용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

쉽게 만들수 있는 생활속 공예

방향 효과에 공기정화까지

살균·살충·제습 효능도 다양

시트로넬라향 모기 퇴치 도움

다. 소이왁스와 담을수 있는 용기, 심지, 향 오일, 장식용 드라이플라워 정도다.

먼저 잘게 자른 소이왁스를 용기에 넣어 녹여준다. 핫플레이트에 녹이면 좋지만 없을 경우 가스레인지에 중탕으로 녹인다. 은근한 불로 녹여주고 마지막은 불에서 내려 잔열로 남은 왁스를 녹여준다. 이마저도 귀찮을 때에는 종이컵에 왁스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상태를 체크해가며 조금씩 녹여준다.

소이 왁스가 녹을 동안 준비해 둔 캔들용기에 심지를 미리 넣고 고정시킨다. 심지는 면 심

지와 나무 심지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면 심지다. 글루건을 이용해 바다에 붙이고 왁스를 부을때 심지가 움직일 수 있으므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위에서 다시 한번 임시로 고정시키는게 좋다.

왁스가 녹으면 향료를 넣어 잘 섞어준다. 향료는 에센셜 오일이나 프로그래스 오일을 사용한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잎이나 뿌리, 꽃, 줄기 같은 곳에서 증류하거나 압착해 추출한 천연 식물성 오일로,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있다. 에센셜 오일은 녹인 왁스의 온도가 50℃ 이하로 내려갔을때 넣어준다.

프로그래스 오일은 인공향이다. 향의 종류가 다양하고 캔들에 넣었을때 불을 붙이지 않아도 방 안에 향기로 가득 찰만큼 발향이 우수하다. 다만 저가의 오일에는 기름냄새가 강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할 때 주의하도록 한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향이 강하지 않지만 아로마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추천한다. 가장 많이 찾는 에센셜 오일의 향은 레몬과 로즈메리, 로즈, 제스민향이다.

레몬은 살균, 살충, 소독, 세정 효과가 뛰어나고 회복, 진정효과가 있다. 로즈메리는 방부 작용과 심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진통해소 효

과가 있다. 여름철 곤충을 쫓고 싶다면 시트로넬라향을 추천한다.

식힌 왁스에 에센셜 오일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캔들 용기에 부어준다. 왁스가 완전히 굳을때까지 평평한 곳에 놓고 기다려준다.

장식은 색소를 넣어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우윳빛의 캔들에 드라이 플라워나 작게 만들어 놓은 필라워스, 원두나 계피 막대기 등을 꽂아놓기도 한다. 색소는 왁스가 뜨거울 때, 그 외 장식은 왁스가 식으면서 불투명해지기 시작할 때가 적당하다. 하루 정도 굳힌 후 사용하면 된다.

용기에 부어 사용하는 컨테이너 캔들은 처음 사용할 때 2시간이상 끄지 않고 켜둬야 한다. 처음 녹았던 자리를 기억하는 캔들의 특성 때문에 짧은 시간내 꺼버리면 동그랗게 파이는 돌출현상으로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

캔들위로 올라오는 심지는 5mm 길이로 적당하다. 불을 끌 때에는 입으로 불어서 끄지 말고 심지를 촛농에 담가서 끄고 기울어진 심지를 곧게 세워 캔들중간에 오도록 조절해서 굳히는게 좋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소이캔들 만들기

녹인 왁스 용기에 넣기

왁스가 굳기 전 장식

심지 5mm로 잘라주기

리본 등으로 꾸며주기

완성된 소이 캔들

맞춤형 체험교육... 현대미술 배워볼까

광주비엔날레재단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31일까지 모집



‘현대미술 어렵지 않아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8월 한 달간 교원,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현대미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초·중·고 교사 대상 교원연수는 이론(11일), 체험(12~13일·16~17일), 전시(17~23일)로 구성됐다. 이론 부분은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과 김은영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신도원 작가 작업실 등에서 진행되는 체험은 ‘창의적 드로잉을 통한 현대미술 교육방법’, ‘전시 디스플레이 방법’, ‘오프닝

퍼포먼스 진행’ 등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졌다. 교사들의 작품 전시회도 예정돼 있다.

마이클 안토니 사이먼(페인팅), 마크(설치·혼성모방), 폴 바주카(사운드), 박상화(미디어), 신도원(미디어), 강술기(행위) 작가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17~21일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홍 작가와 김현옥 작곡가의 강의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광주비엔날레CI를 활용해 공예상품을 제작하게 된다. 이론(20일), 체험(21일, 27~28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전시회를 연다. 자세한 일정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www.gwangjubienale.org)를 참조하면 된다. 062-608-423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기창작센터 ‘봄날예술인협동조합’ 초대 전남옥과미술관 ‘알 수 없는 그 무엇?...’展



박준식 작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남옥과미술관은 오는 18일부터 9월30일까지 아산1실에서 경기창작센터 내 ‘봄날예술인협동조합’을 초대해 ‘알 수 없는 그 무엇? 하하하’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박준식·양쿠라·이윤기·자우녕·정기현·정승원·최정수·홍남기씨 등 작가 8명이 초대됐다.

정승원씨는 섬진강의 물을 얻어서 단어 ‘섬진강’을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 강물을 얻리고, 녹은 물을 다시 또 얻리면서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박준식씨는 제주 4·3 사건에 주목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4·3 사건 현장을 따라걸으면서 아픔과 광경이 제주의 모습을 오버랩 시켰다.

자우녕씨는 서울 광나루에서 시작,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 팔당까지 이어지는 한강 순례를 하면서 그 찰나들을 사진으로 담은 ‘강강순례’ 등 작품을 전시한다.

홍남기씨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조각 되거나 왜곡된 채 미스터리하게 남은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거친 파도의 움직임으로 보여준다. 문의 061-363-727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를,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